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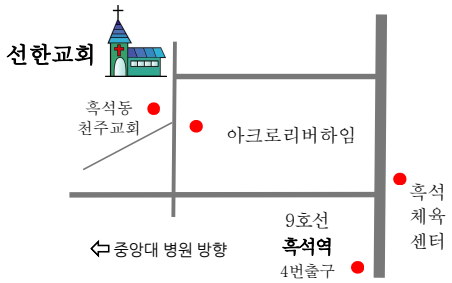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유 아 부	오전 10: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유초등부	오전 10:00	요 셉 회	오후 2:00
		바 울 회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11:00	루 디 아 회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비전워십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 력 교 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전임전도사 윤 영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안에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퇴장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 로	이태수 (집사장)	**관리장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Good Church
	조계승, 편도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딛 1:11)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한교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과경배	35장 (통일찬송가 50장)	
교독문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찬양과경배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기도	박영근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디도서 1장 10~16절	고전 12:13,27
설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공동체에 로그인하라** (정용준 목사)
헌금	헌금송 : 강병국, 백상열 집사	
환영 및 광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송의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셀가족 모임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시 44편 1~26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드보라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운 영 위 원 회 모 임

오늘 2부 예배 후 1층 안디옥 실에서 모입니다.

3. 셀 가 족 모 임

오늘 오후 예배는 셀가족 모임으로 드립니다.

4. 월 삭 새 벽 예 배 총동원금요기도회

5월 1일(월) 월삭새벽예배 (주관: 운영위원)
5월 5일(금) 총동원금요기도회 (주관: 제직회)

5. 어린이주일,유아 유초등부헌신예배

다음 주일(5/7)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후예배는 유아/유초등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6. 교 육 부 서 별 칭 공 모

교육부서 별칭 선정 및 시상 결과.
1) 유아부: '믿음의 씨앗' (배미자 집사)
2) 유초등부: '선한꿈' (장수정 집사)
3) 청소년부: '파워틴' (윤 영 전도사)

7. 체 육 예 배

5월 14일 주일은 체육예배로 드립니다.
장소: 중대부속중학교 운동장
체육예배를 위한 경품 후원을 받습니다(문의: 손정한 집사).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가정예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본문	사무엘하 14:12~14
말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어요. 2년 후,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어요(13:28~29).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 그술에서 3년간 지냈어요.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않았어요. 암논의 죽음에 대한 아픈 마음이 아물자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졌어요(13:39).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간절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다윗에게 해야 할 말을 알려 준 다음 다윗을 찾아가게 했어요. 드고아 여인은 상복을 입고 슬픈 얼굴로 왕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요압이 들려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어요. 자신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는 불쌍한 과부인데, 하루는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서 죽게 했고, 이 일로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형제를 쳐 죽인 아들을 죽이도록 내놓으라고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도와 달라며 다윗에게 간청했어요.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남은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의 대답을 듣고 난 여인은 자신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을 전했어요. 다윗이 자신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거예요. 사람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내쫓긴 사람(압살롬)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만드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했어요. 여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언급하며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자 했어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요압이 계획했는지 묻자 드고아 여인은 정직하게 대답했고, 덧붙여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잘 알고 있으니 지혜롭다며 그를 높였어요. 이 일 이후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요. 그렇다고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압살롬의 죄를 공의롭게 판결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죄 문제에 단호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다시 바른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막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눔	1)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런데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강조했나요?(14절) 2) 가족이나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가족미션	한 주를 돌아보며 가정, 직장, 학교 등 내가 머문 곳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기도	

은혜의 말씀

제 목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딛 1:10~16)
서 론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 론	1. 이단의 특징과 대처법 (1) 이단의 특징: ①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움, ②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10절), ③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가정들을 무너뜨림(11절), ④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함(14절), ⑤하나님을 시인하는 듯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16절) (2) 이단 대처법: ①진리를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한다(9절), ②그들의 입을 막으라(11절), ③그들을 엄히 꾸짖으라(13절) 2. 교훈 (1) 바울이 디도에게 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2) 이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 론	진리를 바로 알고 가르쳐서 거짓 교훈들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방성자 집사	백영미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심인섭 집사
주 방 봉 사	드보라회	여호수아회

매일 Q.T.

가문의 치욕으로 이어진
잘못된 욕정

날짜 : 5월 1일

찬양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본문	사무엘하 13:1~14
말씀요약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 병이 듭니다.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계책을 알려 줍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의 집으로 가고 암논의 요구로 음식물을 그의 침실로 가져갑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다말의 간청에도 암논은 그를 억지로 범합니다.
묵상질문 1	다말에게 욕정을 품은 암논 13:1~5 잘못된 욕정을 품은 암논에게 간교한 요나답이 일러 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려 놓아야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다말을 범한 암논 13:6~14 암논은 범죄를 막으려는 다말의 설득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죄에 대한 경고를 직접적으로 들을 때,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사무엘하 13장 2,14절 성도의 사랑 방식은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암논은 병이 들 정도로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혼을 통해 맺어져야 할 온전한 사랑이 아닌 성적 호기심에 근거한 욕정에 불과했습니다. 암논의 잘못된 사랑은 다말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 자신도 살해당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바른 사랑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랑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모습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제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 내고 죄에 동조하지 않도록 매사에 민감히 분별하며 행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죄에 대한 바른 태도"

찬양과 기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새 273) 너무 멀리 왔나요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933년 뉴욕 브루클린, 마피아 갱단 출신의 아버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카마인 페르시코입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어릴 때부터 범죄 활동에 가담한 그는 17세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후 20대 초반에는 자신이 속한 마피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온갖 살인 청부와 고리대금 등의 범죄를 일삼습니다. 무수한 총격전과 죽을 고비 가운데서 살아남은 그는 '불사조'라는 별명도 얻습니다. 카마인은 조직의 대부까지 오르게 되지만, 1986년 살인과 공갈 등으로 1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알폰소는 아버지와 달리 대학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카마인의 권유로 결국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1986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공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993년 석방된 알폰소는 범죄 조직으로 돌아가 활동하며, 1999년에는 조직 서열 2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불법 무기 소지죄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이후 2001년에 석방되지만, 다시 범죄에 가담해 결국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카마인과 알폰소 부자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삶이 아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부모의 삶은 자녀를 통해 나타나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며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어떤 모습을 닮아 가고 있나요? 나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나요?
말씀 나누기	사무엘하 13:30~39
묵상포인트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분별하고 죄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요나답은 자신의 간교한 계략으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답을 반면교사로 삼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하되 공의에 기초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죄를 공의롭게 처벌하지 못하고 인간적 감정에 흔들려 그냥 넘어간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고 무조건 덮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압살롬이 왕의 아들 중 암논만 죽인 이유를 다윗에게 알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32~33절; 참조, 13:3~5)
적용하기	회개 없이 나의 유익과 성공에만 몰두한 경우는 없나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함께 기도하기	세속적인 성공과 욕망에 치우쳤던 저를 용서하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공의에 기초한 사랑을 행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날짜 : 5월 5일

찬양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본문	사무엘하 14:12~24
말씀요약	드고아 여인은 어째서 왕은 쫓아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이 이 일에 요압이 함께했는지 묻자 드고아 여인은 모든 말을 요압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다우시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허락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묵상질문 1	드고아 여인의 충고 14:12~17 드고아 여인은 사랑과 정의 중 어느 쪽만 강조해 다윗의 결정을 조종하려 했나요?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어떤 문제를 초래할까요?
묵상질문 2	압살롬을 돌아오게 함 14:18~24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했음에도 다윗이 그를 만나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의를 세워애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하 14장 24절 문제 해결은 회피로 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워야 하는 왕의 신분과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신분 사이에서 고민하던 다윗은 결국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을 보지 않는 회피의 방식을 취합니다. 회피는 가장 쉬운 선택이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과는 가장 먼 방법입니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되는 문제 위에 놓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 인간의 방식을 취하되 답을 찾지 못하면 회피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녀나 어떤 이를 향한 애정 때문에 혹시 제가 그의 죄를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말씀 안에서 경책하고,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변의 시선과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른길로 행하게 하소서.

매일 Q.T.

침묵과 증오가 야기한 가문의 비극

날짜 : 5월 2일

찬양	찬송가 343장 시험받을 때에
본문	사무엘하 13:15~29
말씀요약	다말을 범한 후 암논은 그를 심히 미워해 내쫓습니다. 다말이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옷을 찢고 울부짖으니, 압살롬이 이를 알고 암논을 미워합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동행을 요청하자, 다윗은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암논을 죽입니다.
묵상질문 1	다말의 울부짖음 13:15~20 울부짖는 다말에게 압살롬은 뭐라고 말했나요? 억울함으로 울부짖는 이는 누구며, 내가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암논을 죽인 압살롬 13:21~29 암논의 범죄 행위를 안 후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가해자의 죄를 무턱대고 덮어 주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한절묵상	사무엘하 13장 21절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암논의 성폭행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심히 노한 것뿐입니다. 다윗은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단지 회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암논 앞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가벼운 이해와 아들에 대한 왜곡된 사랑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반응이 비극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죄를 바로잡지 않고 덮어 두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에 이르는지 깨닫습니다. 제 안에 남아 있는 분노를 하나님 공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하시는 은혜 아래 엎드리게 하소서. 자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어리석은 선택으로
잃은 두 아들

날짜 : 5월 3일

찬양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본문	사무엘하 13:30~39
말씀요약	다윗은 압살롬이 왕자를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하며, 이 일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해 3년을 지냅니다.
묵상질문 1	암논을 잃은 다윗 13:30~36 요나답은 암논을 잃고 비통해하는 다윗을 어떻게 위로했나요? 요나답처럼 머리는 좋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묵상질문 2	그술로 도망한 압살롬 13:37~39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가족 안에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의에 기초한 지혜로 처리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하 13장 38~39절 진정한 사랑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윗, 암논, 압살롬이 겪은 사건의 발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있는 사랑이 서로를 살리는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큰 사랑이 있어도 인간의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랑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사랑의 원천과 기준은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녀의 죽음에는 옷을 찢으면서도 그의 죄악에는 마음을 찢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에서 제 안일함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관계와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가정과 공동체가 덮어 버린 죄로 인해 비극을 겪지 않도록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게 하소서.

매일 Q.T.

정의와 관용 사이에서
성도가 취할 바른 선택

날짜 : 5월 4일

찬양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본문	사무엘하 14:1~11
말씀요약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보냅니다.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자신을 과부라고 하면서 두 아들이 싸워 형이 동생을 죽이자 사람들이 형을 죽이려 한다며, 그러면 남편의 씨가 세상에 남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막아 주기로 맹세합니다.
묵상질문 1	드고아 여인을 불러온 요압 14:1~3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래를 위해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살핀 후에 진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다윗 앞에 선 드고아 여인 14:4~11 드고아 여인이 연극을 하며 다윗에게 호서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판단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하 14장 1절 지도자는 인간적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민 35:31).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죄를 범한 아들을 수수방관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압살롬의 죄는 희미해지고 압살롬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다윗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죄의 무거움은 사라지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만 남습니다. 성도는 마음이 향하는 것보다 말씀이 명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기 원합니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관용을 보이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게 하소서.